

주체성 기반의 문학논리 구성과 비평적 실천 ; 정태용론

강소연*

- I. 서론
- II. 시대적 요청에 따른 문학정신과 논리
- III. 비평의 전문성 추구
- IV. 미학적 관심과 문학사 구성
- V. 결론

【요 약】

기존의 연구자들이 1950년대 평단의 내재적 문제에 관하여 언급 하길, 전후의 신인 비평가들은 대부분 외국문학 전공자들이라 한 국문학에 대한 교양도 부족하고, 서구 문예사조에 의존하여 민족 특수성을 고려한 문학적 모랄이나 방법을 발굴하지 못했으며, 실제비평의 성과물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 관점에서 본다면 정태용이라는 비평가는 50년대 평단에서 예외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의 비평문 일체를 검토해보면,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비평이 념으로 삼고 1950-60년대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 이화여대 국문과 강사

문학논리를 구성해 나갔음을 확인하게 된다. 전후(戰後)문학의 혼돈과 무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민족문학론은 문학의 전통 계승 문제나 현실참여 문제에 관한 반성을 촉구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체성의 논리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을 마련한다. 여기서 정태용의 문학논리가 모더니티(modernity) 양상을 담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비평적 준거는 논리성과 주체성으로 집약되지만, 이와 더불어 문학의 예술미를 탐색하는 비평의 감상적 기능도 간과하지 않는다. 문학과 사회의 혼융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던 그는 이러한 비평이념을 바탕으로 비평적 실천에도 성실성을 보이는데, 월평을 포함하여 장기간 실제비평 작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일련의 근·현대 문학사를 조명하는데까지 이른다.

이처럼 정태용은 문학비평과 문학사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한국 비평사 내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킨,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전문 비평가였다. 그런데 그가 객관적 비평의 논리성을 누누이 주장한 것에 비해, 실상 작가론에서는 문학연구 방법론이나 분석틀의 부재로 시, 소설 작품의 피상적인 고찰에 머문 것이 미흡점이라 하겠다.

I. 서론

1950년대 한국은 물질적, 정신적 혼란과 폐허를 경험한 시기이다. 타의적 해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 6.25전쟁과 집권당의 부정부패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회, 문화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민족적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당대 사회의 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비평적 활동은 반성과 전환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전 세대에 이루어진 비평담론의 집적물을 상실하거나 부정하고, 새로운 비평정신과 태도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선 것이다. 문단

내부적으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정태용은 이 같은 민족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문학의 확립과 전통의 반성적 계승, 서구사상의 주체적 수용, 시대정신의 통찰에 따른 사회비판과 현실참여 등 실로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평론들을 발표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1950년대 평단의 내재적 문제에 관하여 언급 하길, 전후의 신인 비평가들은 대부분 외국문학 전공자들이라 한국문학에 대한 교양도 부족하고, 서구 문예사조에 의존하여 민족 특수성을 고려한 문학적 모랄이나 방법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중의 일부는 일시적인 비평 활동에 그치고 있어 60년대와 단절되는 현상을 보이며, 설사 연속적인 활동을 펼친 비평가라도 작품론, 작가론 등의 실제비평이 부재하여 시대적 자체 이슈를 전문단적으로 창출하지 못했다고 비판¹⁾했다.

이러한 평가 관점에서 본다면, 정태용이라는 비평가는 1950년대 평단에서 예외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겠다. 그간 비평사적 맥락에서 정태용을 거론할 때는 ‘민족문학론’의 개념과 위상을 마련한 인물로만 그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지만, 그는 시, 소설, 비평에 관한 문학이론 탐구에 열의를 보였을 뿐 아니라 연속적으로 문단시론, 작가론 등을 풍부히 발표하면서 한국 문학사를 조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평론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니 굳이 활동시기를 따지자면 50년대의 기성 비평가군에 속하겠지만, 정태용은 70년까지 꾸준히 비평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비평가로서의 전문성과 한국 문학의 주체성에 대해 고심하면서 취약하였던 비평의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비평 논쟁과 비평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지만 전후라는 한계 상황으로 인해 이념적 선택이 불가피하거나 현실과의 소통의 가능성이 제한

1)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서울, 1994, 9-10면.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평단에서의 세대 교류나 논쟁에 어울리기보다는 기성과 신인의 구분을 넘어 신중한 비평태도로 개별적 모색에 주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전의 비평문학 연구사를 훑어보면, 1950년대 비평문학 일체를 다룬 연구가 활발함에 비해 개별 비평가의 평문에 관한 고찰은 많지 않다. 그것도 고석규, 유종호, 이어령, 조연현 등 몇몇의 비평가 논의에 한정되어 있어²⁾, 실상 정태용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비평활동 이력은 간과되어 왔다. 1950년대 비평의 전반적 흐름을 논하면서 그의 평문들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거나, 민족문학 논의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태용의 ‘민족문학론’에 주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³⁾ 비평가 정태용에 관해 개별적으로 집중한 연구로는 두 편이 전부인데, 전기적 고찰을 토대로 시기별 평문을

2) 1950년대 비평가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강경화, 「1950년대의 비평 인식과 실현화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8.

이 논문은 이어령, 유종호, 김우중, 윤병로, 최일수, 고석규 등 50년대를 대표하는 전문 비평가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김윤식, 「근대와 반근대-조연현론」,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의 세 가지 양상」, 『김윤식선집 3-비평사』, 솔, 1996.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이어령, 장용학, 손창섭을 중심으로』, 향연, 2003.

송현호, 「유종호의 절충주의 문학론」, 『한국 현대문학의 비평적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임영봉, 「전후문학과 고석규 비평의 의미」, 『중앙대 어문논집』, 1995. 8.

홍기종 외, 『고석규 유고전집5- 평가 고석규의 면모』, 책읽는 사람, 1993.

3)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 중 대표적인 몇 편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김세령, 「1950년대 비평의 독립성과 전문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최유찬, 「1950년대 비평연구(I)」,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5.

김용락, 『민족문학 논쟁사 연구』, 실천문학, 1997.

박현호, 「50년대 비평의 성격과 민족문학론으로의 도정」, 조건상 편,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점검해간 학위논문 하나⁴⁾와 주요 평문들을 선정하여 그의 비평 전개양상을 정리한 소논문 하나⁵⁾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고는 특정 평문만 주시한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정태용의 평론 일체를 검토 대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원론비평뿐 아니라 시를 중심한 문학작품의 실제비평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문제 삼았던 정태용의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당시 민족문학 논의, 전통 논의 등에 참여했던 그만의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비평가로서의 고뇌와 정태용이 세운 문학비평 논리의 척도를 밝힐 것이며, 정태용이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취한 자세와 작품을 해석한 방식까지 규명하게 되리라 본다. 이를 통해 한국 비평사 선상에서 5,60년대를 접한 전문 비평가로서의 그 입지와 특성, 사적(史的) 의의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대적 요청에 따른 문학정신과 논리

정태용은 본인이 직접 겪은 압박과 상실의 역사와 당대의 상황을 직시하고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킨 비평가이다. 1950-60년대는 다양한 비평의 대립을 통해 비평 인식의 분화를

4) 김승룡, 「정태용의 비평문학」, 동국대 석사논문, 1984.

: 이 논문은 정태용을 전후문학기를 대표하는 비평가로 보고 그의 문학적 생애를 비평활동과 결합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태용의 전모를 고찰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평문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한 점은 돋보이나, 비평문에 내포되어 있는 정태용의 문학사상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비평적 실현에서 보이는 한계를 짚어주지 못한 점은 메타 비평적 연구로서의 성과에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5) 김유중, 「중도적 비평의 전개양상-정태용론」, 구인환 외 공저, 『한국 전후 문학연구』, 삼지원, 1995.

: 이 논문은 정태용의 비평활동에 대하여 ①비평관, ②실제 비평활동, ③체계화 작업의 일례 등 세 층위로 나누어 고찰한 것으로서 시론적인 성격을 띤다.

보여준 시기이다. 정태용은 스스로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당대 평단에서 펼쳐진 실존주의 논쟁, 현대 논쟁, 전통 논쟁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⁶⁾

그가 발표한 평문들을 보면 어느 한 비평가의 관점이나 동서양의 특정 문학이론에 경도되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1950년대 전후문학을 둘러싼 실존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존주의의 제 문제, 즉 휴머니즘이나 앙가주망 등을 테제로 삼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이론적 변형을 가하여 진보적 전통론과 시대정신 및 주체의식의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실존주의적 상황 인식과 비평행위는 휴머니즘과 연관되어 「실존주의와 불안」, 「현대와 휴머니즘」 등의 평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근대적 인간은 위치가 바뀌어져 본래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카오스의 변두리의 한계상황 속에 실존하는 것이다. (...) 요컨대 실존주의는 철저한 개인주의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세계의 본연의 존재방식임을 설명하고 그 개인들의 불안과 절망을 타당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인간과 세계-동일한 것이지만-의 본질적인 바탕으로서 세상은 부조리와 불안의 거대한 기업체의 순환이며 생활이란 부조리의 확대, 재생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허무나 절망에 빠질 수는 없는 연유로 하여 불안, 절망, 한계 등의 조건을 직시하고 대결

6) 당시 실존주의 논쟁은 서구 이론의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의 수용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국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현대 논쟁은 시대 인식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현대’를 과도기나 전형기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있고, 근대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 새로운 현대라는 시대 인식을 보여주거나 한국 역사의 특수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현대의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 논쟁은 전통 의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적이며 향토적인 요소로 전통을 한정하기도 하고, 현재에 의미 있는 ‘고전적 교양’을 전통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고전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통해 오늘의 문학과 현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김세령, 「1950년대 비평의 독립성과 전문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115-145면 참조.

하는 극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것을 초월하고 초인으로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태용은 실존주의를 개인과 세계의 존재 방식, 부조리와 불안이 재생산되는 생활의 공간, 극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직시하고 초월하는 초인의 문제로까지 발전시켜 해석하고 있다. 그의 철학적 이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태도가 그러하듯, 종교의 역할을 부정하고 신(神)을 잃어버린 인간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대결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태용은 ‘문학이 사회적 요구를 가장 깊이 표시할 때 인간의 주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 말해도 역시 진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 말한 사르트르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이 작가의 몫이며, 작가는 이 시대 무엇을 쓸 수가 있고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회의 곤궁하고 결핍된 여러 조건들을 개선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작가는 글을 써서 상황에 투철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⁸⁾

그런데, 정태용이 문학의 현실참여에 동의하면서도 사르트르에 대하여 ‘지식인의 욕구불만의 감정을 세계원리에까지 덮어씌운 유아독존적 나르시스트’라고 단정짓고, 실존주의를 현실 조건과 유리되어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사상이라고까지 비판한 점은 서구 사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계 태세임과 동시에, 실존

7) 정태용, 「실존주의와 불안」, 『현대문학』, 1958. 9.

8) 이런 주장은 그의 민족문학론에서도 드러나는데, 문학인들의 고뇌는 민족의 생활 현실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작가는 역사적 주체로서 현실을 형상화하고 문제 제기하는 작품을 생산할 것을 당부한다.- 정태용, 「민족문학론- 개념규정을 위한 하나의 시고」, 『현대문학』, 1956. 11.

주의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근대적 인간이 불안한 감정에서 존재의 심리주의적 형이상학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불안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건설하는 데는 실존주의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인정한 정태용은 그 부조리한 논리를 극복하고자 휴머니즘으로 시선을 돌린다.

「현대와 휴머니즘」¹⁰⁾이라는 글을 통해 그는 휴머니즘의 사적인 전개를 다루면서 우리 문학사상에 세 번에 걸쳐 나타난 경위와 서구의 휴머니즘 역사를 고찰하였다. 특히 그는 이 글에서 실존주의 관련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 탐구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태용이 당대에 보여준 비평정신과 태도는 사르트르의 현실참여와 인간 존재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휴머니즘적 문학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의 신인들이 현실참여 문학을 해 나갈 조직적인 그룹을 만들어 이론과 창조를 아울러 행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이 결여된 순수문학이란 것은 독자와 문학과를 점점 멀리 나누는 인텔리의 소일(消日)이요, 일제시대의 유물이지 결코 문학정신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¹¹⁾

여기서 읽을 수 있듯이, 정태용은 순수문학을 ‘인텔리의 소일’이거나 ‘일제시대의 유물’이라 비판하고 문학정신의 올바른 자세로서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20년대부터 해방 후까지 줄곧 이어져왔던 문학논쟁의 좌파적 재현을 보는

9) 실존주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기는 1948년 『신천지』를 통해서였는데, 이 잡지에 「실존주의 특집」이 게재되면서 사르트르의 이론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전후문학계에 있어 실존주의는 체계적인 철학 인식의 바탕 없이 문학적 방법론의 일종으로, 허무주의와 동격으로 단순화시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0) 정태용, 「현대와 휴머니즘- 上, 中, 三, 完」, 『현대문학』, 1961.

11) 정태용, 「주체성과 비평정신」, 『현대문학』, 1964. 7.

듯한데, ‘어느 주장의 옳고 그른 문제는 문학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야 할 것’¹²⁾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가 문학의 순수론을 비방 혹은 소거하려는 의도에서 참여론을 선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비평가로서 문학에 내재해 있는 사회성에 관심을 두고 신인 작가들에게 창작의 방향을 강경하게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문학자와 문학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평문 「비평의 기능」에서 말하기를, ‘문학정신은 그 사회의 생활정신이요, 시대정신’¹³⁾이기도 하며, ‘세대정신이나 시대정신을 탐색하고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는 일’¹⁴⁾이 비평의 본질이자 무엇보다 문학자의 주 임무인 바, 그것은 ‘사회와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현실을 염두에 두고 실존주의 이론을 반성적으로 수용, 문학인들에게 행동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정태용의 비평관은 ‘시대정신’, 혹은 문학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층으로서의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정태용은 서구 사상만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또한 무조건 계승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통과 관련된 그의 문학논리는 1960년대 초반에 표면화되는데¹⁵⁾, 이미

12) 정태용, 「비평의 본질과 그 기능- 上, 下」, 『현대문학』, 1969. 5.- 6.

13) 정태용, 「비평의 기능」, 『현대문학』, 1968. 2.

14) 정태용, 「비평의 본질과 그 기능- 上」, 『현대문학』, 1969. 5.

15) 1960년대는 4·19 민주혁명을 분기점으로 사회 및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전환을 이루며 비평정신의 혁신을 꾀하는 시기이다. 이때 세계 문학작품의 번역 붐과 서구 이론의 활발한 소개로 작가나 비평가들이 자체 비판 없이 외래 사조에 경도되어 사고하고 표현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다. 특히 이 문제는 戰後 문학을 논의하는 데서 크게 부각되는데, 戰後 평론에도 서양 인명이나 용어가 남발된다든지, 마치 한국 작가는 서양의 누구 작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훈계식의 문체에서 혐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결국 ‘전통’ 문제를 화두로 논의를 개진케 하고 한국 문학의 위기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동기가 된다. 戰後세대와는 차별화된 ‘새 것’- 새로운 시대와 언어-을 요구하면서 과거와 전통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진

50년대 중반부터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그는 일관되게 전통의 주체적 인식을 보여준다.

정태용은 백철과 유종호의 전통부정론에 대하여 ‘전통의 요소를 서구 사조에서 찾으려는 단절론자들은 한국의 현실을 보지 않고 외국의 사조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는 반론으로 일축한다.¹⁶⁾ 전통이나 외래문화는 역지로 계승되거나 이식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사·공간을 점유한 현실과 정신의 패턴 속에서만 유의미한 계승과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을 논의할 때의 시간성이란 자연적 혹은 계기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이며, 따라서 민족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진정한 전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단순한 모방과 답습의 차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찾기 전에 주체성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태용은 전통 계승에 관하여 ‘의식의 허수아비’를 경계시키며 우리가 현 시대에 가진 조건과 능력으로 비판하고 선택했을 때 그것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서 정태용이 말하는 ‘한국적인 것’은 곧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바, 풍토적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물각한 관념적인 주체의식은 어떠한 세계사상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한국 문학사를 점검해 볼 때 춘원, 임화 등의 전통단절론이나 이식문화론, 또는 서구 편향적 지식인들의 이론에 비하여 문학논리의 준거가 뚜렷하고 정당한 것임을 확인케 한다. 그렇지만 민족 현실에 기반한 전통의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논의의 구체성이 아쉽다.

비평가들은 새로운 주체 정립에 나선 것이다.- 강소연, 『1960년대 사회와 비평문학의 모더니티』, 역락, 2006, 179-253면 참조.

16) 정태용, 「한국적인 것과 문학- 백, 유 양씨 소론에 대하여」, 『현대문학』, 1963. 2.

한편, 정태용은 일방적인 전통계승론에 내포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엘리엇의 전통 개념을 차용하기도 한다.

“엘리엇은 그의 「전통과 개인적 재능」에서 자기 세대를 골수 속에 갖는 것만이 전통을 옳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세대를 골수 속에 갖는다는 것은 작가로 하여금 곧 시대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현대성을 극히 예민하게 의식시키는’ 역사적 의식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식이 없는 전통의 계승이란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¹⁷⁾

정태용은 엘리엇이 전통을 과거의 상속 개념으로 보지 않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포함한 ‘역사의식’을 강조했다¹⁸⁾는 측면에서 동의한다. 유종호가 이 같은 엘리엇의 전통론을 기초로 삼고 전통단절론에 한 표를 던진 것과는 달리, 정태용은 문학적 현대성의 특질을 현실 감각 및 역사의식과 연결시킴으로써 과거의 것에 대해 현대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진보적 전통론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의 논리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서 ‘현대적’이란 모더니티(modernity)의 개념, 즉 성찰성 및 주체성을 내포하는 논리로서, 전통이 현대적, 창조적으로 계승되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자기세대에 충실한 주체적 정신을 확립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과거의 것만이 전통으로 선택된다는 정태용은 과거의 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가치가 아닌, 고현학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 문제는 민족문학 논의와 깊은 상관관계로 결속되어 있는데¹⁹⁾ 정태용은 그간 추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던 민족문

17) 정태용, 「전통과 주체적 정신-세대의식 없이 옳은 전통은 없다」, 『현대문학』, 1963. 8.

18) T. S. Eliot, 이경식 편역, 『문예비평론』, 범조사, 1983, 13면.

19) 전후(戰後)에 형성된 보수적 민족문학론자들은 세계문학의 보편성으로 무

학 담론을 역사적 구체성을 획득한 지평으로 확장, 주체적인 문학 논리를 구성하고자 했다.²⁰⁾ 이 논지의 핵심은 ‘민족주체성’이다. 그는 민족주체성의 획득을 위한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작가들은 사회과학적인 근대정신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그래서 주체성에 입각한 전통론을 ‘근대화론’과 연결시키는데, 즉 ‘문학에 있어서의 주체의식이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의해서 현실을 비판하여 현실을 조형하자’는 주장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길이요, 유능한 민족의 한 사람이 되며 사회의 지도적인 문학자가 되는 길’이라고 역설한다.²¹⁾

자유와 합리주의적 사고체계가 사회과학적인 근대정신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면, 정태용의 견해는 1950-60년대의 사회적 혼돈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상황에 서 있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조건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게다가 그의 문학논리는 전통과 민족을 강조하면서도 종족의 뿌리나 습속의 계승을 주장하는 배타적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의 역사, 정신, 생활적 입지를 규명해내는 선행적 문학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찾은 점²²⁾은 당시의 전통 논의 수준을 가늠해볼 때 돋보이는 선견(先見)이 아닐 수 없다. 이쉽게도 정태용이 새로운 견지에서 개진한 민족문학 논의의 더 심화시켜 면밀히 체계화하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지만,²³⁾ 일

어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의 본원적 특성을 모색하여 고유한 ‘민족문학’의 이념을 세우고자 했다. 이는 곧 문학적 전통의 문제와 연결된다. - 한수영, 『한국 현대 비평의 이념과 성격: 1950년대 비평의 재해석』, 국학자료원, 2000, 68-69면 참조.

20) “무엇이나 다 민족문학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문제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체험하고 사상하고 해결해 가는 산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의 바탕을 옹고 조직하고 형상한 작품만이 민족문학일 것이요 또 그것이 우리 문학자가 수행해야 할 문학상 임무가 아니고 다른 어디에 있을 것인가?” - 정태용(1956. 11.), 앞의 글, 『현대문학』.

21) 정태용, 「작가와 주체의식-근대화를 위한 문학의 임무」, 『한양』, 1964. 8.

22) 정태용(1956. 11.), 앞의 글, 『현대문학』.

23) 전통 및 민족문학에 관한 내용은 정태용 이후 최일수, 장일우 등으로 연

제 식민지 시대, 전쟁과 분단, 미군정기 등 파란의 역사를 거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한국 사회 및 문단에 역동적인 움직임의 발단이 되고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 희망빛의 역할을 한 점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이 문학논리를 토대로 비평가로서의 보다 객관화된 입지도 확보해 나가는데, 실제 문학작품의 향방을 제시하고 작가들의 주체적, 지성적 작품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비평가 고유의 임무를 실현하고 있었다.

III. 비평의 전문성 추구

정태용은 비평도 작가의 창조 작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지적하면서, 작품을 소재로 삼는 비평가는 재구성된 현실 속의 필연성을 발견하고 작가가 만든 형상이 논리성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작가를 계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비평가로서의 책무를 두고 고민하던 그는, 전문적인 비평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창작한 작가의 기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작품 분석이 필수적이며 둘째, 작품의 오류를 시정하여 작가들에게 발전의 계기를 부여하고 셋째, 문학을 독자의 생활과 교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채트먼의 도식을 연상케 하는데, ‘작가-작품(텍스트)-독자’ 사이의 소통 과정은 객관적인 비평가의 시선이 더해짐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리라는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평가를 ‘작가나 시인에 대해서 최초의 직업적인 고급 독자’로 파악하면서 월평이나 시평(時評)이 ‘진지하게’ 전개될 때 독자들의 안식(眼識)을 높이고 작가들에 대한 이해자를 증가시키고

계되면서 한결 발전적인 논의들을 선보이게 된다.

문학운동으로서 광범위하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정태용은 당대 평단을 ‘무풍지대’로 칭하며 한철 작품을 다루는 시단(詩壇) 월평이나 두루뭉술한 시평(時評)이 간혹 게재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다.²⁴⁾ 비평가는 어느 한 시기의 작품만 다룰 것이 아니라,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로 나아가서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대별 정리 작업을 통해 올바른 궤도를 설정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설명한다.²⁵⁾ 여기서 그의 문학사적 관심을 읽을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월평에 참여할 때도 단순히 작가나 시인이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객관화된 비평가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이해, 분석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태용은 매달 신인들의 작품을 대하면서 지나친 형용조의 문장 나열, 작중 인물의 물개성화, 리얼리티의 결여, 정신적 관념성으로의 매몰 등을 지적하여 산문정신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신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월평에 대한 불신감 및 작품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월평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주현, 정한숙 등의 작가들이 비평의 기준과 평자의 위치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자, 정태용은 비평가의 입장에서 월평 불신론을 반박한다.²⁶⁾ 비평 또한 하나의 문학적 작업임을 명시하면서 작가가 소재를 택하듯

24) 당시 평단에서 월평 형식 자체가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 비평가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월평의 전문성 여부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이때 정태용은 월평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월평이란 한 작가의 세계나 수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의 작품에서 중심적인 화제를 찾고 주 경향을 이끌어냄으로써 작가들의 그때그때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지면 관계상 작품을 상세히 해부하고 논술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달 작품들에 대한 일종의 비교론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월평의 한계성을 설명했다. 정태용, 「십일월 창작평 - 불경기의 작단」, 『조선일보』, 1956. 12. 4.

25) 정태용, 「비평가의 위치」, 『자유문학』, 1958. 6.

26) 정태용(1956. 12.), 앞의 글, 『조선일보』.

비평가도 작품에 대해 호악(好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이 선택의 기준은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작품 또는 작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감정이라고 못 박는다. 여기서 비평을 문학의 한 장르로, 더 나아가 창작의 층위로 등재시키려는 그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태용은 일부 과오와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비평가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도 놓치지 않고 언급한다. 비평가가 신이 아닌 이상, ‘문장에 나타난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문학 이외의 예술세계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을 지니며 정실비평으로 기울어지거나 비평각도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평가가 문학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파쟁이나 사회논쟁에 이용당하기도 한다고 주의를 준다. 게다가 작가들 가운데 월평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며 인간적인 사교에까지 평언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있기로 비평가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월평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로, 비평가는 인신공격의 내용은 삼가고, 작품에 대한 작가의 욕심과 비평가의 주안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작품을 관망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분석을 시도하라고 당부한다. 문학의 원리나 원칙을 충분히 알고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시평과 월평도 가능하다²⁷⁾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정태용은 월평에 관한 논의를 통해 당대 창작 월평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반성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월평의 위상과 특성을 구체화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부여했다. 비평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한 정태용은 비평대상이나 비평기준의 선택은 비평가의 몫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작가 우위의 비평관을 벗어나 비평가들의 전문적인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는 비평논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27) 정태용(1958. 6.), 앞의 글, 『자유문학』.

전문적인 비평의 핵심은 바로 '논리성'이다. 정태용은 「주체성과 비평정신」에서 비평이란 비평가의 논리성과 작가의 논리성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작가나 비평가가 현실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길의 이치나 사고방식을 '논리성'이라 말하고 있다.²⁸⁾ 작가나 비평가가 갖는 세계관이란 바로 이 논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관념이고, 또한 이 논리는 주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민족에게 맞는 가치를 창조하고 향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평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결국 정태용 비평이 갖는 가치 척도의 근거는 논리 체계와 주체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²⁹⁾ 그는 비평의 기능을 세 가지-감상적 기능, 입법적 기능, 지도적 기능-로 분류하여 비평적 준거의 틀을 마련한다.

첫째, 정태용은 비평의 감상적 기능을 작품의 예술미에 대한 감성적 감상 기능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미적 관점은 평론을 통해 비평가의 예술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하나의 작품이 예술미의 高低나 攷拙은 형식적인 입법성보다도 더 심오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예술미는 그 내용과 형식이 어울리는 특수한 성질로서, 그 작품에서는 느끼거나 유출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은 다른 작품에 그대로 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입법화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술에 대한 감수성으로써 감상하는 도리 밖에 없다.”³⁰⁾

28) 엘리엇은 비평의 기능이란 본질적으로 질서의 문제이고, 한 개의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정태용이 말하는 '논리성'은 엘리엇이 말한 질서, 혹은 체계의 문제와 유사성을 지닌다. 즉 비평가는 작품에 발견된 미의식 외에 내재하는 윤리의식, 세계관 일체를 발견하여 이를 논리화함으로써 비평작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인 것이다.

29) 정태용이 실제 작품의 성과를 검토할 때 작품의 진실성, 작품의 현실 반영, 새로운 생활양식의 탐구, 새로운 인간성의 탐구, 작품의 사상성 등의 여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때, 그의 비평이념-논리성과 주체성-은 문학의 가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정태용(1968. 2.), 앞의 글, 『현대문학』.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 비평이 문학작품을 내용 위주로 가치 평가하거나 작가의 세계관에 치중해서 판단하던 우리의 문학 전통을 감안할 때, 정태용이 ‘내용과 형식이 어울리는 특수한 성질’로서 예술미를 이해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태용은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구조주의적 관점 중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고 융합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문학이론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태용이 문학의 예술미에 대해 깊이 천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평가는 문장을 위주로 이해할 뿐 예술세계를 다 통찰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³¹⁾지은 점을 고려할 때, 비평의 심미적 준거를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태용이 말하는 비평의 입법적 기능은 자기가 감상한 예술미를 지적(知的)으로 이해하고 문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평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으로서, 여러 장르의 체계적인 정리, 각 장르와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해석, 장르별 창작방법의 제시, 문학사적 정리와 그에 따른 사조의 특성 규명, 유파별 문학양식의 탐구 등을 가리킨다. 게다가 정태용은 문학을 체계화시키는 기준으로 주체성, 통일성, 보편성 등을 제시³²⁾하고 있다. 비평은 문학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입법적 준거들은 객관적 외재 비평의 규율에 비해 충

31) 정태용(1956. 12.), 앞의 글, 『조선일보』.

32) 주체성은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문학이론의 선택에 있어 관건이 되어 주고, 통일성은 그 문학이론의 체계 마련에 절대적인 열쇠가 되며, 보편성은 체계나 이론이 공시적으로 나타난 모든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여기서 통일성은 체계성과 함께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 합리성은 자기의 세계관으로서 장래의 비전을 전개할 수 있고 아울러 그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태용, 「비평의 본질과 그 기능- 下」, 『현대문학』, 1969. 6.

분히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비평의 문을 개방해놓은 셈이다.

그런데, 정태용은 장르나 사조, 문학사에 특별한 관심을 둔 반면, 내재적 체계의 틀은 마련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문학 연구방법론, 즉 문학작품 속의 실체를 파악해내는 분석방법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으로 보아, 당시 작품 하나하나의 과학적인 실제비평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태용은 비평의 지도적(指導的)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수록 비평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말 그대로, 비평가는 문학방법론을 지도하고 작가들의 문학적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map)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침과 연결된다. 그 방향성이란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시대의 사회 현실과 얼마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가 진술하는 비평의 지도적 기능은 ‘시대적 방향의 설정, 진리의 인식, 윤리의 확립’으로 집약된다. 이로써 작가들의 문학정신을 정립시키려는 의도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정태용의 비평이념인 시대정신과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당대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표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조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자세로 당대에 맞는 문학양식과 문학사상을 탐색하고 문학의 가능성을 새로이 모색해 나가는 비평의 지도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같이 정태용은 비평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평단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평의 준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가 문학정신을 정립하면서 줄곧 주지시켜 온 ‘주체성’은 이 논의에서도 키워드가 되는데, 창작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전문 비평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한정짓는 데 바탕이념이 될 뿐 아니라, 비평 논리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여기서 정태용이 비평적 준거의 기틀로 삼고 있는 주체성은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는 모더니티라는 정신주의, 즉 비평가의 시대정신

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V. 미학적 관심과 문학사 구성

정태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비평의 논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제시한 준거의 틀에 맞춰 구체적인 실천 작업에도 열의를 보인다. 1950년대 평단의 분위기는 일제 식민지, 해방공간 등 당대에 제대로 문학적 의미를 평가받을 수 없었던 앞선 시대의 작가 혹은 작품들을 주시하기 시작하는데, 정태용도 간단한 월평 외에는 동시대의 작가보다 이미 작고한 작가들에 대하여 시대별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문학사적 견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소설이론의 탐구와 더불어 미학적 관심의 일환으로 소설작품에 대한 비평을 시도한다. 정태용이 남긴 소설론으로는 「소설의 미학」, 「소설의 수법과 세계」 등이 있고, 소설가론으로는 김유정론, 이상론, 이광수론, 강신재론, 김동리론 등 5편이 있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장르의 관건은 ‘구성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그가 실제 작품을 대할 때 구조의 실증적 분석에 치중한 글은 흔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의식이나 현실참여의식을 염두에 두고 소설들을 검토한다.

먼저, 김유정에 대해서는 작가주의 태도와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태용은 작가의 태도를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와 작중 인물의 위치로 구분한 후, 김유정의 경우는 작가 스스로가 어리석고 선량한 작중 인물이 되어 그 감정을 동정하고 독자들의 자존심을 최고도로 높여준다고 진단하였다. 게다가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은 ‘달관과 끈기’라는 우리의 민족성을 표상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시켜 볼 때 무식과 무능의 인간 유형에는 ‘낙천적이고 유쾌한 생활을 마련할 수 있는 능동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이 인간들의 생활의 저변에는 무의식적이거나 생리적인 <니힐리즘>이 가로놓여 있다. (...) 온갖 생활의 아비규환을 어리석은 인간들의 소산으로 관념하는 유정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니힐의 소산이다. (...)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전지전능이 아닌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 전지인간의 이러한 맹점을 심리적으로 추구하고 처결한 것이 유정의 문학이 아닐가. (...) 어떤 의미에서 문학은 항상 니힐의 위치에 서서 이런 온갖 비극적인 생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만발한 꽃밭일 수도 있다.”³³⁾

이와 같이, 정태용은 민족문학 논리와 같은 궤에서 김유정의 소설을 평가하며, ‘중류 사회적 교양이 없는 이 사회 시궁창의 어휘 호흡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익살성과 낙관주의에 큰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에, 이광수와 이상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춘원은 어떠한 소설에서도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의제에서 해방하려는 저 르네상스적, 근대적 인간의 본질은 한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 춘원이 발견한 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요, 육체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형이상학적 모랄이었다. 또 이 사회도 근대적 사회이기 보다는 식민지로 있는 후진된 한국 사회였다.”³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태용은 시대의식에 민감하다. 한국 근대소설의 개척자로 불리는 춘원이 시대 현실을 실증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교양과 이상주의에 의해서 한국 사회를 재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근대를 외치면서도 근대적 인간상은 형상화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또한, 당시 신인 비평가들이 자의식의 세계 속에서 현실에 절망

33) 정태용, 「김유정론- 니힐리즘과 문학」, 『예술집단』, 1955. 12.

34) 정태용, 「한국적 동키호테 象」, 『현대문학』, 1960.

하고 저항했던 이상의 작품을 ‘현대문학’으로 이해했던 것³⁵⁾과는 달리, 정태용은 이상 소설의 난해성을 폐병을 앓고 있던 작가 개인의 생활적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그의 소설도 시와 마찬가지로 그가 체험한 특수한 심리와 감정의 분석이요 생활이라는 것은 없다. (...) 특히 그의 메타포어의 개성적인 표출은 표면적인 논리의 비약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리어리티에까지 이르지 못한 독자에게는 그의 시와 소설은 상징도 비유도 분위기도 될 수 없는 주문의 세계일 뿐이다. (...) 그 자유의식을 향락과 창조에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그는 다시금 그 자신을 하나의 박제로서 의식하려 하였고 그러한 박제의 순수 유희를 통하여 불안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 이것이 무능하고 소심한 이상이 시인한 유일한 형이상학이었다.”³⁶⁾

정태용은 실존주의의 주요 테마를 적용하여 작품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상 문학 속에 개인적인 고통의 상황뿐 아니라 실존적인 인간의 비극과 한계상황에 대한 통찰까지 들어 있음을 간과하고 작가 이력과 관련된 개인적 절망으로만 평가한 그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정태용은 두 페이지 분량의 월평을 매월 성실하게 게재했으며, 다양한 문학잡지에 실린 장·단편 소설들을 분류하여 간단히 총평을 곁들인 평문³⁷⁾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다작(多作)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여주었던 작가들을 세대별로 작가군을 나누어 작품의 시대적 경향을 설명³⁸⁾한 점은, 정태용이 문학사적

35) 이어령, 「이상론」, 『시작』, 1954. 7.

「나르시스의 학살-시의 난해성」, 『신세계』, 1956. 10.

김춘수, 「이상의 시」, 『문학예술』, 1956. 9.

「이상의 죽음」, 『사상계』, 1957. 7.

36) 정태용, 「무능력자의 형이상학- 이상의 인간과 문학」, 『예술원보』, 1959. 2.

37) 정태용, 「1958년 소설총관: 두 세대와 디램마의 세계」, 『현대문학』, 1959. 1.

38) 정태용은 여기서 작가들을 구세대와 신세대로 나누어 평가한다. 구세대

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기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이 글들은 지면의 제약과 함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당대의 소설 지형도를 모호하게 그리는 데서 그치고 있다.

그의 소설가론이 막연한 인상비평을 넘어 감상적인 어휘를 배제하고 논리적 해석을 시도한 자취는 확연하나 양적으로도 빈약했고 그 고찰 내용이 범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반해, 시인론에 집중된 정태용의 비평적 실천의 범위는 방대하기까지 하다. 그가 시인으로 문단에 입문해서인지 시 작품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³⁹⁾ 정태용은 1900년대~196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30여 명의 시인들을 연대기 순서에 따라 다루면서 한국 현대시 문학사를 조명하고자 15년에 걸쳐 비평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⁴⁰⁾ 이는 「현대시인연구」 시리즈에 ‘詩史적 견지에서’라는 부제를 달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정태용의 시인론은 각 시인들의 대표작 2-3편을 선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 시 세계의 특징을 규명하면서 그들의 시사적인 위치를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의 경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주제- ‘민족과 사회’, ‘자연과 인생’-로 나누어 이

작가-염상섭, 이무영, 주요섭-의 소설은 해방 이전의 사회적, 생활적 윤리의식을 재인식시켜 과거적인 모랄과 질서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지녔고, 신인 작가군-서기원, 한말숙, 정연화-은 당대의 현실을 수용하여 자기 인생을 즐기는 터전으로 삼는 파와, 현실에 적응하면서 낡은 모랄과 현실의 불순성에 저항하는 파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두 갈래의 모습은 신세대적 인간생활의 파위를 저버릴 수 없는 동시에 안정을 구하는 연륜적 불안과 윤리로, 이성과 감성이 디램마에 빠져 자기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라고 이해했다. 정태용이 지적한 이러한 문학 경향은 시대 현실에 대처하는 지식인들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9) 정태용은 1937년 조선일보에 시 「분노」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입문하여 조연현과 함께 시 동인지 『詩林』을 창간하기도 했다.

40) 육당, 춘원에서 출발하여 주요한, 한용운, 이상화, 김소월, 김영랑, 이육사, 신석정, 조지훈, 김현승 등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시인들과, 모운숙, 노천명 같은 여류 시인, 그리고 전후 시인들-백기만, 김형원, 김용호 등-의 작품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 시사(詩史)의 큰 줄기를 마련하였다.

해할 수 있겠다.

첫째, 정태용은 시대정신과 민족주체성, 조국독립을 기원하고 노래한 이상화, 신석정, 이육사 등의 시 작품을 호평한다. 이상화는 민족적 현실을 두고 그 애상을 산문 기법으로 잘 표현한 시인이며, 신석정은 일제의 압박에서 견뎌내는 생활 신념을 노래한 시인으로 그의 시집 『슬픈 목가』는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피의 기록이라고 해설한다.⁴¹⁾ 또한 이육사의 시는 조국 독립을 위한 개인의 투쟁 체험을 민족적 보편정서로 확대시킴으로써 예술성의 차원을 높이고, 호쾌한 기상을 현대시의 수법으로 용해시켜 삶의 고백이 관념이나 구호에서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긍정했다.⁴²⁾

유명 시인들 외에 시대의 사회의식을 작품화한 백기만이나 정치 시와 전쟁시를 주로 쓴 김형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류의 시인론은 대체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성적 관점과 윤리의식 같은 주제에 주목하면서 시의 사상성과 시대정신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짙다. 하지만 이때에도 시상 전개 기법 등 미적 형식에 대한 언급을 놓치지 않은 점이 정태용 시 비평의 특징이다. 여기서 그의 확장된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시에서의 시대정신이란 이전 시대와는 차별되는 현대성과 그 시대를 가장 보편적으로 잘 대변하는 대중성을 내포하는 말이라면,⁴³⁾ 정태용은 한국의 시들을 검토하면서 현실 조건에 대한 비판 및 극복의지를 내포한 내용과 참신한 형식이 잘 융합된 ‘현대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태용은 소위 자연파, 인생파라 불리는 시인들- 주요한, 김동환, 김영랑, 유치환 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반영이나 공리성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연 찬미나

41) 정태용, 「신석정론」, 『현대문학』, 1967.

42) 정태용, 「이육사론」, 『한국 현대 시인 연구기타』, 어문각, 1976.

43) 정태용, 「현대시의 이해」, 『예술원 논문집』, 1970.

자연 애호, 향토적 정서, 혹은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한다. 20년대 시인 주요한은 서정의 자연을 소재로 감각적 형용어를 구사하는 등 언어감각의 특출함을 보여준다고 극찬했고, 서사시집『국경의 밤』으로 알려진 시인 김동환은 우국인사를 그리는데만 치중하지 않고 자연적 풍토에 중점을 두고 시를 썼다고 진단했다. 대개 김동환에 대해 민족적, 사회적 문제를 모티프로 삼는 시인으로 단정 지은 것에 반해, 정태용은 그의 시는 국민의 생활상을 묘사하면서 상상력을 더하여 자연과 투쟁하는 인물의 인정을 표현한 ‘향토적인 풍물시’에 가깝다고 새롭게 해석한 면은 논의의 심도를 가늠하게 한다.

김영랑에 관해서는 정감 있는 언어구사, 음조의 영롱성, 음악적 가락 등에 주목하는데, 시인의 미감의 배경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깔려 있어 시각과 후각까지 자극시킨다며 감각적 표현을 긍정했다. 또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관념을 표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⁴⁴⁾ 한편, 유치환은 대자연의 관찰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과 단명함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어 영원한 것에 귀일시켜 보려는 노력에 열중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정태용이 ‘진정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싶다면 인간의 모든 약점을 하찮은 잡음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강한 면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것은 인간의 한계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실존주의적 인식관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처럼 정태용은 자신의 비평정신과 준거를 적용해 가면서 시인론을 집필했고, 시인들이 추구하는 작품성에 따라 비평가의 시각과 해설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이 시대정신을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평의 기능 가운데 ‘감상적 기능’을

44) 정태용, 「김영랑론」, 『현대문학』, 1958.

인지한 정태용은 시의 속성에 따라 심미적 가치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고로 자연과 인생을 주제로 노래한 시의 경우, 시적 언어의 특성이나 감각적 기법, 문학적 상상력, 생활정서의 표현양상 등 주로 작품의 미학성에 근거하여 비평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태용의 시인론에서 또 하나 특별한 면을 꼽자면, 1920년대와 관련해서는 낭만주의 시, 데카당과 상징주의 시, 민요시, 관념시, 순수시, 서사시, 사회시 등 별도의 유파 개념을 도입, 항목화시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적 실천은 새로운 문학형식이나 경향, 그리고 예술적 가치에 눈을 뜨고 당대의 미학적 흐름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한국의 근현대 시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근대 작가에 대한 비평적 산물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문학사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던 당대 문단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비평가 한 개인의 작업으로서는 그 규모나 의욕이 상당히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성과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 시사가 서구 시의 영향뿐 아니라 우리 근대시의 지속적인 창작으로 정립되어 왔음을 증거해주는 일종의 전통계승 작업⁴⁵⁾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해당 시인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현대 시사에서 중요 입지를 가진 몇몇 시인들을 생략한 점⁴⁶⁾, 구체적이거나 본격적인 분석의 틀이 없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 등은 정태용 실제비평의 한계이자, 시사적(詩史的) 견지에서도 오점을 남긴 것이라 하겠다.

45) 단편적인 사례지만, 한용운 시를 분석하면서 정철, 황진이의 시가를 끌어 들인 점이나, 신석정을 논하면서 한용운, 박용철, 정지용 등 다른 시인과 의 연관성을 언급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46) 특히, 이태우로기 편향의 문제로 언급하기 곤란했던 당시 문단의 기류를 감안하더라도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의 시 작품을 다루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V. 결론

지금까지 정태용의 비평문 일체를 검토함으로써 그가 1950-60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학논리를 구성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과 분단, 4·19 혁명과 군부 독재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한 사회적 삶의 노정은 평탄할 수 없었기에,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의 심미적 가치를 탐색하면서도 비평의 지도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전문 비평가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전후(戰後)문학의 혼돈과 무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민족문학론을 제시한다. 이것은 문학의 전통계승 문제나 현실참여 문제에 관한 반성을 촉구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체성의 논리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을 마련한다. 여기서 정태용의 문학논리가 모더니티(현대성) 양상을 담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평정신의 배후에는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비평에 대한 자생적인 이론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체성이 서구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⁴⁷⁾하게끔 유도한다.

정태용이 말하는 비평적 준거는 논리성과 주체성으로 집약되지만, 이와 더불어 문학의 예술미를 탐색하는 비평의 감상적 기능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비평이념을 바탕으로 비평적 실천에도 성실성을 보이는데, 월평을 포함하여 장기간 실제비평 작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일련의 근·현대 문학사를 정립하는데까지 이른다. 이것은 1950-60년대 평단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

47) 정태용은 전통의 개념, 비평의 본질 및 기능의 측면에서 엘리엇의 초기 논의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실존주의 사조를 일면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현실참여라는 문학론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그는 객관적인 비평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분석비평 방법론으로 부각되었던 신비평 이론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성을 열어 보인 중요한 성과물로 남는다. 그런데 그가 객관적 비평의 논리성을 누누이 주장한 것에 비해, 실상 작가론에서는 문학 연구 방법론이나 분석틀의 부재로 시, 소설 작품의 피상적인 고찰에 머문 것이 미흡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정태용은 비평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문학과 사회의 혼용에 대한 열의를 갖고 주체성의 비평논리로 일관했으며, 한국 문학의 흐름의 연속성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편향성 없이 원론비평과 실제비평 골고루 다수의 비평적 산물을 내놓았고, 특히 시인론 시리즈를 통해 문학비평과 문학사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한국 비평사 내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킨,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전문 비평가였음이 자명하다.

그런데 본고는 정태용의 평문 일체를 포괄하려는 필자의 욕심과 한정된 지면이 상충하여 전반의 해설 차원을 넘어선 구체적인 인식물로 결실하지 못한 채 마무리 지은 감이 있다. 특히, 기존에 거듭 연구되어 온 정태용의 민족문학론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그 논의의 기저에서 발견되는 비평정신에 관한 언급은 소략한 편이다. 게다가 정태용이라는 비평가의 독자적인 조명에 치중하여 당대 문단의 핵심적인 인물들과의 소통관계나 조직적 활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재구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겠다.

주제어 : 시대정신, 현실참여, 민족주체성, 전문비평가, 논리성, 미학적 관심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태용의 비평문이 게재된 1950-60년대의 『사상계』, 『예술원보』, 『월간문학』, 『자유문학』, 『조선일보』, 『한양』, 『현대문학』 등 참조.

2. 논문

김만수, 「전후비평에서 ‘전통’ 논의의 의미」, 『현대비평과 이론』, 1991 가을, 전문 참조.

김세령, 「1950년대 비평의 독립성과 전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115-214면 참조.

김승룡, 「정태용의 비평문학」,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4, 전문 참조.

김유중, 「중도적 비평의 전개양상- 정태용론」, 『한국 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전문 참조.

3. 단행본

강소연, 『1960년대 사회와 비평문학의 모더니티』, 역락, 2006, 15-91, 179-253면 참조.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서울, 1994, 5-21면 참조.

한수영, 『한국 현대 비평의 이념과 성격: 1950년대 비평의 재해석』, 국학자료원, 2000, 58-129면 참조.

Eliot. T. S., 이경식 편역, 『문예비평론』, 범조사, 1983, 10-15면 참조.

Organization of literary logic stated to self-identity and critical
practice : A study on Jung Tae-yong

Kang, So-Yeon

1950s and 60s were the decades when Korea experienced devastation, material shortage as well as spiritual confusion. Hence the literary criticism, which fac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period, took on introspectional and transitional characters and found itself at the crossroad in search of new avenues of criticism.

In response to a calling of history, Jung Tae-yong struggled with national literature of Korea. Having realized the importance of critical practice he attempted to lay a theoretical ground to the literary criticism that had been deficient up to that period.

Since he lived through the harsh social condition of the period punctured with such epochal events as war, division of the country and April 19 students uprising, Jung Tae-yong emphasized a guiding role of literary criticism while he searched for aesthetic value of literature, including poetry.

Beneath his spirit of criticism lies the spirit of the time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which emphasized the value of engagement of literature with social reality, and his such sense of nationalistic identity made him critically accept traditional and western ideas.

Although the critical frame of reference he adopted boils down to logic and self-identity, he critique was limited as it ended with the superficial assessments of poems and novels, because his practical works in the theories of author and poet lacked the solid methodology of literary studies and the frame of analysis.

Nonetheless, throughout the period while he worked as a literary critic, Jung Tae-yong, enthusiastic about linking literature with society, was consistent in retaining critical logic of self-identity and published numerous works in

unbiased literary criticism in a theory-criticism and a practice-criticism. Especially, he proved himself to be a professional critic rare among his contemporary who raised the status of critics in the Korean literary history by exploring the interface between literary criticism and literary history through his serial works on poets.

Key words : spirit of the times, engagement with reality, national self-identity, professional critic, logicity, aesthetic interest

강소연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서울산업대 문예창작학과 강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139-1번지 연우빌라 라동 101호

전화번호: 019-9212-6937

전자우편: hjrsign@paran.com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